

죽청사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 구조이다. 죽청사 주지는 승려 시용이다. 현재 부국사 주지까지 겸임하고 있다.

## 17. 지장사(地藏寺)

지장사는 울진읍 명도리 새터마을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다. 승려 형문(亨問)이 경기도 의정부 소재 지장사에서 수도하던 중 1994년 3월 3일에 이곳에 와서 불사를 시작하면서 창건하였다. 1995년 음력 3월 3일에 법당과 요사를 지었는데 법당에는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고 현판은 승려 일타의 글씨이다.<sup>750</sup>

또 지장사에서는 2010년 12월 19일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기와지붕 구조인 염불선원 현판식을 하였고, 현판의 글씨는 서예가 단산 김재일이 썼다. 2019년 8월 30일에는 기존의 법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무량수전’ 대작불사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무량수전은 2020년 말경에 낙성을 할 예정으로 현재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지는 승려 형문이다.<sup>751</sup>

## 제2절 사지(寺址)

절터는 과거에 사찰이 존재했으나 세월이 흘러 절이 폐사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는 터로, 대개 탑재(塔材)나 석등(石燈) 등의 석조물이 남아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고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점차 사찰의 수가 증가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승유억불 정책에 따라 많은 절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폐사의 원인을 보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승려 스스로 사찰을 떠나거나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폐사되기도 한다. 또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외세에 의한 전쟁,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수탈 등으로 폐사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의 불전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다. 목조 건축물은 습기와 화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지면 빨리 부식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폐사지에는 불과 습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주춧돌·석등·석탑재·기단석·축대 등의 석재 유물이 주로 남아 있다. 이런 석조물은 대부분 주변의 사찰에서 가져가 재사용하거나, 조선시대에는 향교나 서원 등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750.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6쪽

751. 전화 인터뷰(지장사 주지 형문, 여, 2020. 2. 25.)

폐사지의 석재들을 민가에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 민가에서는 폐사된 절터를 논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기도 하였다. 전통시대 사찰은 대부분 산지가람이어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산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흔적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울진 지역의 사지도 석재 유물이 남아 있지 않은 곳은 산으로 변했거나 경작지로 전용되어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울진 지역에서도 많은 사찰이 창건과 폐사를 반복하여 많은 수의 사지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울진군 사지는 모두 42곳이며, 이 중에서 사지의 사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8곳이다. 사적이 확인되는 28곳은 신라시대 대흥사지·천량암사지·청암사지·신흥사지·대천사지·수진사지·성류사지 등 7곳, 고려시대 백암사지·장재사지·배잠사지·선암사지·정림사지·직산리사지·광대사지·덕정사지·신림리사지·이평리사지 등 10곳, 조선시대 옥정사지·심수사지·기양리사지·후포리사지·계조암터 등 5곳, 시대미상인 고성리사지·봉림리사지·통고사지·길곡리사지·삼율리사지·금음리사지 등 6곳으로 이들 사지에 대해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도표는 울진 지역의 전체 사지 현황이다.

<표 65> 울진군의 시대별 사지 현황

사지명	위치	시대	비고
대흥사지(傳)	울진읍 대흥리 본동	통일신라	부도, 주초석, 와편, 대웅전을 동림사 이건(1963)
천량암터	근남면 행곡리 천량산골	//	금폐
성류사지	근남면 구산리 성류산	//	금폐
대천사지	근남면 노음리 오로동	//	금폐, 삼층석탑 동림사 이건(1963)
청암사지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	//	삼층석탑, 석등재, 주초석, 기단 석렬, 금동불상, 인화문 토기, 중국동전 (구산리사지)
신흥사지	매화면 덕신리 향곡동	//	금폐, 우물, 와편 (덕신리사지)
수진사지	평해읍 오곡리 물방아골	//	금폐 (현재 수진사)
백암사지	온정면 소태리 백암산땀골	고려시대	금폐
선암사지	온정면 조금리 선암사골	//	금폐
장재사지	북면 주인리 면전동	//	삼층석탑, 석불좌상, 축대, 와편 (주인리 사지)
배잠사지	근남면 구산리 외성산동	//	당간지주, 석탑재, 와편
정림사지	울진읍 정림리 절골	//	주초석, 탑재, 기단석
신림리사지	울진읍 신림리 절골	//	금폐, 와편
광대사지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	//	금폐, 주초석, 장대석, 석탑부재, 삼층석탑 경주박물관 이건
덕정사지	죽변면 화성리 반정	//	금폐, 주초석, 와편 (화성리사지)

사지명	위치	시대	비고
직산리사지	평해읍 직산리 탑산골	//	금폐, 석탑
이평리사지	기성면 이평리 상심수절골	//	금폐, 와편
옥정사지	북면 고목리 지장동	조선시대	금폐 (고목리사지)
성조암터	북면 주인리 면전동	//	금폐 (현재 성조암)
심수사지	온정면 온정리 독점골	//	금폐 (온정리사지)
계조암터	온정면 소태리 단아동	//	금폐, 와편
기양리사지	매화면 기양리 절골	//	금폐
후포리사지	후포면 후포리 절골	//	금폐
능허사지	울진읍 고성리	시대미상	금폐 (고성리사지)
봉림사지	울진읍 읍남리 상토일	//	금폐, 축대, 와편
진광사지	울진읍 읍내리	//	금폐
학곡리사지	평해읍 학곡리 탑산골	//	금폐
상당리사지	북면 상당리 절골	//	금폐
봉전암터	북면 소곡리 절터골	//	금폐
소광리사지	금강송면 소광리 절터골	//	금폐
통고사지	금강송면 쌍전리 통고산	//	금폐 (쌍전리사지)
전곡리사지	금강송면 전곡리 절골	//	금폐
월출암터	근남면 행곡리 검산사서쪽	//	금폐
검산사지	근남면 행곡리 검산중허리	//	금폐, 주초석, 와편
갈면리사지	매화면 갈면리 절터골	//	금폐
관음사지	매화면 매화리 가람절골	//	금폐
오산리사지	매화면 오산리 무릉동	//	금폐, 토기편
길곡리사지	매화면 길곡리 오봉골	//	금폐, 주초석, 와편 (오봉사지)
망양리사지	기성면 망양리 현종산하	//	금폐
통제암터	온정면 백암온천 부근	//	금폐
삼율리사지	후포면 삼율리 절골	//	금폐
금음리사지	후포면 금음리 산85(만산)	//	금폐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새암기획; 울진군, 2001, 『울진군지』;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 분포지도』-울진군-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1. 신라시대

### 1) 대천사지(大川寺址)

대천사지는 울진군 근남면 노음2리 오로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근남면 소재지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석류굴 방면으로 가다가 좌측편 오로동 마을 뒤 월증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천사(大川寺)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사적은 물론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다만 대천사지에 남아 있던 삼층석탑[현재 동림사 내 삼층석탑(東林寺內三層石塔)]이 대천사의 내력을 확인해 줄 뿐이다.

대천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하여 고려시대까지는 존속하였으나, 조선시대 어느 시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천사지의 조성 시기는 대천사지에 건립되었다가 현재의 동림사로 이진된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보다 조금 빠르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동림사 경내의 삼층석탑은 원래 울진군 근남면 노음2리 오로동에 있었던 대천사의 것으로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던 것을 1963년 동림사 대웅전 앞에 이설하였다. ‘대천사지 삼층석탑’이라고도 불리는 삼층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2층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이다.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라 석탑 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불영사 삼층석탑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752</sup>

### 2) 대흥사지(大興寺址)

대흥사지는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대흥사는 태백산 정봉 아래에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의상대사가 절터를 찾으려고 금강산에서 비둘기 세 마리를 날리자 한 마리는 설악산 신흥사, 한 마리는 대흥사, 나머지 한 마리는 불영사로 날아갔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군위군 압곡사가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날려 보내서 앉은 자리에 절을 지었다는 설화와 비슷하다.

대흥사지는 울진읍 대흥리 태백산(太白山) 정봉 남쪽 산록에 있다. 대흥사지는 국도 36호선이 지나가는 불영사 계곡 일원의 건잠마을에서 북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약 4km 정도 올라가면 본동마을이 있다. 이 본동마을 북서쪽에 불미당골이 있고, 대흥사지는 이 불미당골의 입구에 해당하는 구릉지 일대이다. 태백산 정봉의 남쪽 산록이다. ‘대흥사’라는 사명이 전하고 1802년(순조 2) 「예조완문(禮曹完文)」에 사산경계(寺山境界)에 표식을 하여 대흥사를 수호토록 하였지만, 허물어져 대웅전만 남은 것을 1963년 지금의 읍내리 동림사(東林寺)로

752. 심현용, 2005, 앞 논문, 98-99쪽



옮겨지었다고 한다. 현재 대흥사지에는 민가와 경작지 주변으로 석축열이 일부 남아 있으며, 대흥사지 곳곳에 가공석과 기와 편, 백자 편들이 산재하고 있다. 사역은 마을의 서쪽 경작지 일대에 걸쳐 확인되므로 상당한 규모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며 마을의 민가 남쪽 끝에는 부도 1기가 남아있다.<sup>753</sup>

대흥사지 부도는 울진읍 대흥리 대흥사지 대웅전이 있었던 곳에서 동남방으로 약 200m 지점 본동 새마을회관 오른쪽 민가 옆의 밭에 있다. 부도 주인은 진허당(振虛堂) 지현(知珰)의 부도로 1818년(순조 18) 4월에 세운 것이다.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는 20여 년 전에 도굴을 당해 붕괴된 것을 마을에서 다시 고쳐 세운 것으로, 조선 후기의 양식이지만 치석이 세련되지 못하고, 장식이 전혀 없는 등 각부의 조각 수법이 약화되어 형태가 정제되지 않았으나 불영사 양성선사 부도를 많이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sup>754</sup>

### 3) 성류사지(聖留寺址)

성류사(聖留寺)는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성류사지에 있었던 사찰이다. 성류사는 신라 31대 신문왕[재위 681~692]의 아들인 보천태자가 성류굴에서 수도한 후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성류사와 관련하여서는 고려 학자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 전하고 있다. 또한 매월당 김시습이 성류사에서 하루 밤을 묵은 적도 있다고 하며, 임진왜란 당시 화재가 나서 불전에 있던 불상을 성류굴 안에 숨겨 두었다는 설이 구전되고 있다.<sup>755</sup> 성류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도 사세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읍지나 사적에 성류사의 기록이 없다가 1937년의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폐사되었다가 19세기 무렵에 재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수진사지(修真寺址)

수진사지는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물방아골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오곡리 천축산 중턱에 위치한 수진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사지로 추정된다. 수진사는 대웅전 등 경내 건물이 모두 근년의 것이나 부도와 석탑재 등의 석조물들이 남아있고 와편이 산재하고 있다. 신라 신문왕 때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알 수 없고 지금의 사찰은 1963년에 중건된 것이다. 석탑재는 옥개석 1점이며 그 외 석등의 지대석과 간주석 일부가 남아 있다. 대웅전에는 가경 3년(1798)의 화기가 있는 후불탱화 1점이 있다.<sup>756</sup>

75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57쪽

754. 심현용, 2005, 「석조물로 본 울진지역 불교문화」 『박물관지』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108쪽

755.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55쪽

756.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1쪽

## 5) 신흥사지(新興寺址) [일명 덕신리사지(德新里寺址)]

신흥사지는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울진읍 읍내에서 국도 7호선을 타고 남쪽 매화면 방향으로 오다가 덕신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하면 대곡동에서 도착한다. 덕신1리 대곡동에서 서쪽 고치골로 들어가면 항실마을이 나온다. 항실마을에서 다시 남쪽 절골로 포장도로를 따라 약 2km 가량 올라가면 산간 계곡에 접해서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가 나오는데, 경작지의 최상단부에는 한 채의 민가가 있다. 민가 주변 밭에는 많은 양의 기와 편과 자기편이 산재해 있는 덕신리 사지가 있다.

신흥사지에 있었던 신흥사는 삼국시대 신라 진덕왕 때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나무로 기러기를 깎아 날려 보내어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설화에 “목안삼도(木雁三道)를 파송(派送) 하였더니 일도(一道)는 덕신리의 신흥사(新興寺)에 표착(漂着)하고, 일도는 대흥사(大興寺)에 표착하고, 나머지 일도는 불영사(佛影寺)에 표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러기가 도착한 3곳에 모두 사찰을 창건하였으나, 현재 덕신리의 신흥사는 폐사되었고, 절터는 농지가 되었다. 신흥사지의 민가 주변은 밭의 경작 때문에 신흥사 절터가 많이 훼손된 듯하며, 유구 흔적과 절터의 흔적이 미약하다. 인근 덕신리의 주민들은 신흥사지를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신흥사 터라고 전하고 있다.<sup>757</sup>

모두 울진 지역 사찰로, 후대 사람들이 고승인 의상대사와 연결시킴으로서 사격을 올리 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937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는 신라 진덕왕[기묘년] 때 의상법사가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758</sup>

## 6) 천량암지(天糧庵址)

천량암지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천량암은 천정동 건너 편 백련산 동남쪽 청량산골의 암벽 사이에 있는 석굴로 해발 125m 높이에 터가 남아 있다.

민간에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원효대사가 이 절에 주석할 때 암석 구멍에서 물과, 아침저녁으로 쌀 2되가량의 양식이 나왔다고 하여 천량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욕심 많은 중이 구멍이 좁아 쌀이 적게 나온다 하여 구멍을 넓혔더니 그 후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아랫마을의 이름을 쌀고[米庫(미고)]라고 불렀다. 그 뒤 말이 변하여 쌀구·살구로 되어 현재의 행곡(杏谷)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행곡 마을에는 기와 편들이 흩어져 있는 3~4평 정도의 공터가 있다.<sup>759</sup> 바위 구멍에서 쌀이 나오는 이야기는 백암사지의 녹바위 전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

75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03쪽

758. 김정민·김주부 역, 2017, 앞 책, 44쪽

759.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55쪽

## 7) 청암사지(靑巖寺址) [일명 구산리사지(九山里寺址)]

청암사지는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로, 청암사는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에 있던 절이다. 주변의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 때에 창건된 것으로, 현재는 폐사되었다. 청암사지는 근남면 구산3리 탑들마을 일대 논으로 개간된 곳과 능선에 걸쳐 있다. 울진읍 읍내에서 국도 7호선을 타고 남쪽 근남면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성류굴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200m 정도를 직진한다. 삼거리가 나오면 울진의 성류굴이 아닌 구산4리 방향으로 약 1km를 직진한 후에, 좌회전하여 구산3리 왕피천휴양농원을 향해 약 2.4km를 가면 청암사지에 도착한다.

청암사지에는 보물 제498호로 지정된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을 비롯하여 구산리 석등재(九山里石燈材) 등의 석조물 등이 남아있다. 경작지를 비롯한 주변의 민가에서도 치석재가 쉽게 찾아지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사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북편에서 3칸 규모의 건물지가 확인된다. 전면 주칸 370cm, 측면 670cm이다.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옆에 놓인 구산리 석등재는 연화문의 하대석과 간주석 일부로 하대석은 현재 청암사지 내에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고, 능선 상에 탑재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위치만 알 뿐 현존하지는 않는다.

또한, 현재 보물 제498호로 지정된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과 구산리 석등재가 보호 철책 안에 있고, 그 주변에 가옥과 밭이 들어서 있는데 가옥의 온돌·주초석·담장 등은 청암사지 내의 유구 석재들로 축조하였다. 구산3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밭을 일굴시 상당량의 기와 편과 전돌, 다듬은 석재들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일대의 개간된 논에서도 역시 개간 시에 상당량의 기와 편과 기단석들이 노출되었는데 대부분은 온돌이나 논둑의 축대를 쌓는 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보물로 지정된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옆의 구산리 석등재는 수법과 재료로 보아 삼층석탑과 동시대인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sup>760</sup>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은 1968년 복원을 하였고, 그해 12월 19일 보물 제498호 지정되었다. 2004년에 해체, 수리하였으며, 2006년에는 주변을 발굴 조사하여 금동 불상 및 철마, 중국 동전, 명문기와, 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울진 지역에 유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울진 지역의 불교사와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761</sup>

구산리 석등재는 파손이 심하게 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작된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대석에 있는 연꽃의 양식과 8각 평면 입면체를 유지한 조각 수법으로 보아 전형적인 석등 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등은 일반적으로 가람배치상에서 금당이나 석탑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이므

76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92쪽

761. 심현용, 2005, 앞 논문, 96~97쪽

로 구산리 석등도 청암사지 삼층석탑의 앞면이나 대웅전 앞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762</sup>

## 2. 고려시대

### 1) 광대사지(廣大寺址)

광대사는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 광대사지에 있었던 사찰이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절터에는 직경 104cm인 주초석 3개와 길이 84cm, 폭 39cm, 두께 12cm의 장대석 1개, 용도 불명의 석재 3개가 밭둑에 놓여 있으며, 절터 추정 면적은 동서 약 100m, 남북 약 75m 규모이다. 삼층석탑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한다. 석조물의 분석 결과 광대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763</sup>

### 2) 덕정사지(德亭寺址)

덕정사는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화방동 절골 화성리사지에 있었던 사찰이다. 사지의 흔적은 미흡하나 곳곳에 주초석이 남아 있고 경작지와 산 경계부분의 농로 및 논둑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 편이 찾아진다. 기와 편은 무문이 대부분이며 태선문도 소량 확인되고 있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지하였던 사찰로 추정된다.<sup>764</sup>

### 3) 배잠사지(盃岑寺址) [일명 구산리사지(九山里寺址)]

배잠사지는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고려 후기 절터로 근남면 구산2리 외성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외성산동[바깥잘미] 마을을 감싸고 있는 구릉의 남쪽 하단부 경작지 일대가 사지이다. 산에 접한 경작지에는 탑 부재가 남아있고 동편 농로 건너편 밭에는 당간지주가 있다. 구전에 ‘배잠사’라는 절이 있었고 근년까지 삼층석탑이 있었으나 분실되고 현재는 기반 갑석으로 보이는 부재만 남아 있다. 주변에서는 무문의 와편이 찾아지지만 마을 인근이고 근대 생활유적과 혼재되어 있어 유적의 흔적은 모호한 편이다.<sup>765</sup> 배잠사지가 고려시대 절터라는 것은 배잠사지 당간지주와 배잠사지 삼층석탑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배잠사지의 동편 경작지 한편에 당간지주가 있다. 2개의 지주만 있고 그 외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배잠사지 당간지주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양식상 형태가 간결하고, 지주로서는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형태가 퇴화된 일면을 보이고 있다. 양식상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의 제작 수법을 보이며, 함께 있던 배잠사지

762. 심현용, 2005, 위 논문, 113쪽

76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10쪽

76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36쪽

76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93쪽

삼층석탑 등을 감안할 때 배잠사지 당간지주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울진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당간지주이기도 하다. 2004년 10월 14일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47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sup>766</sup>

배잠사지 삼층석탑은 배잠사지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굴당하고 없다. 현 기단 갑석은 주초석으로 추정되는 자연석 화강암 위에 흙으로 덮여 있고, 파손이 심하며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 청색 화강암으로 세웠고, 평면 방향의 일반 삼층석탑이다. 배잠사지 삼층석탑은 비록 많은 부재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지만, 제작 시기는 지붕돌에서 둔중감이 보이고, 균형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67</sup>

배잠사지에서 발견되는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모두 고려 후기에 사찰을 건립하면서 같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잠사는 늦어도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백암사지(白巖寺址)

백암사지는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뱀골에 위치하고 있다. 백암사지는 백암관광호텔에서 북서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700m 가량 올라간 지점에 있다. 등산로가 백암사지의 중앙을 통과하는데 석축과 계단이 남아있고, 주변에서는 고려, 조선시대의 와편과 자기편들이 산재한다. 일설에 백암사는 조선시대 신미선사(信尾禪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사지 두 곳의 석축은 비교적 잘 남은 편으로 정방형의 자연석을 3~7단으로 쌓았는데 들여쌓기를 하여 상하 2단으로 구성하였다. 위쪽의 석축은 길이 25m, 높이 2.3m이며, 아래쪽의 석축은 길이 25m, 높이 1.2m로 북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 두 석축간의 거리는 15m이다. 상단의 평지에는 초석으로 보이는 자연석이 4개소에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사명이 전하고, 『범우고』에는 이산해(李山海)의 사기(寺記)가 있으며 이미 폐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768</sup>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백암사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설의 바위인 ‘녹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구멍에서 쌀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백암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절을 찾아온 손님의 수에 관계없이 매일 녹바위 구멍에서 나오는 쌀로 손님들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백암사에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자, 한 스님이 녹바위 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쌀을 많이 빼내려고 쇠가 달린 지팡이로 바위 구멍을 예전보다 훨씬 크게 뚫어놓았

766. 심현용, 2005, 앞 논문, 112~113쪽

767. 심현용, 2005, 위 논문, 100~101쪽

768.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25쪽

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구멍에서 쌀이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스님이 백암사로 돌아가 법당을 살펴보니 전에 없었던 큰 기둥이 법당 앞에 하나 세워져 있었다. 스님이 지팡이로 그 기둥을 두드려보았더니 빈대 같은 벌레로 뭉쳐진 벌레 기둥이었다. 이후 백암사는 폐허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sup>769</sup>

백암사지의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이므로 백암사 또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5) 선암사지(禪巖寺址)

선암사지는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온정면 조금2리 상조금마을에서 서쪽의 절골로 들어가면 계곡은 신기골과 선암사골로 나뉘어 백암산 방향과 영양 방향으로 갈라지게 된다. 북쪽인 선암사골로 약 1km 가량을 올라가면 계곡 중앙에 자리한 느티나무 성황목이 있고, 성황목 남동쪽 계곡에 접해서 선암사지가 있다.

선암사지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완만한 경사지에 3단의 석축을 쌓아 터를 조성하였다. 최상단의 중앙에는 인동 장씨 묘가 자리하여 묘역이 석축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운데 석축은 자연석을 3~5단으로 쌓은 높이 1.2m 내외로 일부만 남아 있으며, 그 아래쪽의 석축 역시 비슷한 높이로 쌓았다. 하단 서쪽으로 우물터가 남아있으며, 석축 아래로 기와 편과 자기 편이 산재하고 있다. 선암사지에서 확인되는 터의 추정 면적은 폭 31.5m에 너비가 33.5m로 1,055.25㎡이다.

선암사지에 대하여 과거 문헌 기록에는 ‘선암사(禪庵寺)’ 혹은 선암사(禪巖寺)’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역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기와 편으로 보아 선암사는 고려시대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70</sup>

선암사지에서 확인되는 유물로 보아 사지의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이므로 선암사 또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6) 신림리사지(新林里寺址)

신림리사지에 창건되었던 사찰은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절골에 위치하였으며, 사찰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림리사지는 이미 경작지로 변하여 사지의 흔적은 미미하다. 주변에서 와편들이 쉽게 찾아지고 논둑은 일부 석축으로 추정된다. 사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신림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사찰이라 하며, 수습되는 와편도 고려시대 것으로 보

769.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 백암사 녹암이야기」,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77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26쪽

인다. 따라서 신림리사지에 존재하였던 사찰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771</sup>

## 7) 이평리사지(梨坪里寺址)

이평리사지에 창건되었던 사찰은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상심수리) 절골에 위치하였으며, 사찰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지는 약한 경사의 넓은 경작지로 변모하였다. 계단식 경작지 일대에서 와편과 자기편들이 수습되고, 논둑 곳곳에 천석이 확인된다. 사지로 확인할 유구는 찾아지지 않으나 예전부터 ‘절터’로 불려왔고 이 골짜기를 ‘절골’로 부르고 있다. 수습되는 와편으로 보아 고려시대 특징이 보이며, 유물 산포범위로 보아 사역이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지의 추정 면적은 동서 약 120m, 남북 약 80m로 중앙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적심석군이 일부 보이고 있는데, 주칸 거리 130cm, 크기는 90cm 정도이다. 따라서 이평리사지에 존재하였던 사찰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72</sup>

## 8) 장재사지(長在寺址) [일명 주인리사지(周仁里寺址)]

장재사지는 울진군 북면 주인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장재사지는 울진읍 읍내에서 국도 7호선을 타고 북쪽 북면 방향으로 가다가, 덕구교차로에서 나와 덕구온천 방향으로 지방도 917호선을 타고 약 3.5km를 가면 오른쪽에 주인2리 마을회관이 나온다. 100m를 간 후에 우회전하여 약 4km를 들어가면 주인3리 면전동이 나오며, 면전동에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한지골과 탑골로 나뉜다. 남쪽의 탑골로 400m 가량 들어가면 계곡은 다시 어드뱅이골로 갈라진다.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의 북편 구릉지가 장재사지이다. 사지는 장재산의 북편 골짜기에 위치하여 ‘장재사’라는 사명이 전하고 있다.

현재 주인리사지에는 주인리 삼층석탑과 주인리 석불좌상이 남아있으며, 남은 유물로 보아 장재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로 보인다. 장재사지는 장재산 북쪽 아래에 남향을 하여 장재를 바라보며 건립된 산지형 가람으로 지형에 따라 축대가 정연하게 축조되어 있다. 현재 장재사지 즉 주인리사지에는 주인리 삼층석탑과 주인리 석불좌상이 유존하고 있다.

주인리 삼층석탑은 단층 기단에 옥신석과 옥개석이 1점씩 남은 것을 다시 쌓은 것이다. 4매로 짜여진 지대석도 교란된 상태이다. 기단 면석은 4매석인데, 각 면의 재질이 다르고 우주나 탕주의 표현도 없다. 갑석은 부연 없이 중앙에 탑신받침만 2단을 모각하였다. 옥신석은 한쪽이 부서져서 다른 돌을 끼워 맞춘 상태이다. 옥개석은 4단의 층급받침을 하고 상단에도 2단의 옥신받침을 새겼는데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편이다. 현재 높이 148cm의 소형으로 고

771.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57쪽

77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19쪽

려시대 탑으로 추정된다.<sup>773</sup>

주인리 석불좌상은 불두가 떨어진 것을 다시 올려놓았고 오른쪽 어깨부터 다리까지 마모가 극히 심하고 뒷면도 파손된 상태이다. 주름 표현은 세련되지만 어깨는 완전히 각이 진 편이다. 양손은 배 앞에 두었는데 약호를 든 것으로 보인다. 파손이 심하지만 머리는 나발로 보이며 뺨에도 적당한 살붙임이 보인다. 뒷면에도 옷주름 표현이 일부 남아있다. 규모도 작고 보존 상태도 열악하지만 고려시대 초기의 석불좌상으로 보인다.<sup>774</sup>

장재사지의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의 제작 시기가 고려시대로 추정됨으로 장재사 또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9) 정림사지(淨林寺址) [일명 정림리사지(淨林里寺址)]

정림사지는 울진군 울진읍 정림1리 절골에 위치하고 있다. 정림사지는 정림리 정림마을 서북편의 절골에 사지가 있다. 일설에는 정림사의 옛터라고 한다. 절골 일대는 밭과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경작지 주변에서 다량의 와편과 석축, 초석 등이 확인된다.

사지는 크게 3단의 석축으로 나뉜다. 사역은 동서 40~50m, 남북 100m 가량으로 면적은 1,500여 평으로 추정되며, 밭 서쪽 끝에 초석재들이 모여 있다. 초석은 전체적으로 방형인데 상단에 2단의 쇠시리와 원형의 주좌를 각출하였으며, 폭 21cm의 고맥이가 표현되어 있다. 원형 주좌의 지름은 34cm이다. 사찰사전의 대흥사 기록에는 삼화면의 정림사를 옮겨 대흥이라 개명하였다 하므로 대흥리 대흥사의 이전 위치가 정림리사지로 추정된다.<sup>775</sup>

정림사가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는 근거는 정림리사지에 있는 석탑재들이다. 정림리사지 석탑재는 하층 기단 저석과 하층 기단 면석을 동일석으로 만든 석재 2매, 하층 기단 갑석 1매, 상층 기단 면석 3매, 지붕돌[옥개석] 1매가 흩어진 채 남아 있다. 석탑은 남아 있는 각 석탑재의 형태 및 규모나 체감 비율로 보아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2층 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 시기는 석탑재 일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전반적으로 신라석탑의 전형적 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추정된다. 양식상으로는 동림사 삼층석탑보다 약간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sup>776</sup>

정림사지에서 수습되는 석탑재와 와편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정림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77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9쪽

77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69쪽

77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57쪽

776. 심현용, 2005, 앞 논문, 102~103쪽



### 10) 직산리사지(直山里寺址)

직산리사지에 창건되었던 사찰은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에 위치하였으며, 사찰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직산리사지에 조성되었다가 도난당한 삼층석탑의 사진을 통해서 창건 시기를 추정하였다. 직산리 삼층석탑은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직산리사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삼층석탑이다. 직산리 남산마을 서쪽에 있는 탑산골 골짜기 일대가 직산리 사지로, 1980년 초까지도 탑이 남아 있어 남산마을 주민들이 탑돌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문사라는 태고종 사찰이 세워지면서 직산리 삼층석탑도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보문사도 폐사되고 2000년경에 개인 불당이 세워져 있다.<sup>777</sup>

직산리 삼층석탑을 도난당하기 전의 기록과 사진을 토대로 살펴보면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결구 수법에서 부재의 개별화와 지붕돌 받침에서 목조 건축의 공포를 모방한 형태 등 목조 건축의 양식을 반영한 백제계 석탑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sup>778</sup> 탑은 도난을 당하였지만 사진 자료를 토대로 이 절터의 사찰이 고려시대에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조선시대

### 1) 계조암사지(繼祖菴寺址)

계조암은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단하동 계조암터에 있었던 사찰이다. 계조암에 관한 기록은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계조암은 선암사 뒤편에 있고 규모는 6칸이라 하였으며, 삼면이 암벽으로 이루어져서 남쪽 한 곳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였다. 30여년 뒤에 편찬된 『범우고』에는 선암사 북쪽에 있으며 사면이 모두 석벽으로 둘러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계조암의 창건에 관한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폭포 아래에 보석 같은 바위가 굴과 같다고 하여 달공굴이라고 하면서 계조암과 달공화상(達空和尚)에 대한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옛날에 달공화상이 이 굴에 들어가 하늘에 맹세하기를 “내가 만일 생각을 거짓되게 하거든 하늘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진실한 생각을 하거든 부처의 마음을 보여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하늘이 갑자기 6월에 눈을 내리고, 눈이 내린 곳을 찾아 암자를 창건하였다고 한다.<sup>779</sup> 그 후, 떠돌이 중이 그 암자에 기숙하였더니 한밤중에 신령이 벽을 밀어 죽게 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죽은 중이 옳지 못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달공화상이 엄한 경계를 한

77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63쪽

778. 심현용, 2005, 앞 논문, 101~102쪽

779. 『범우고』 원춘도, 평해 사찰[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2020년 2월 24일], 121쪽

것이라고 믿었다. 이로부터 충분한 수도를 한 자가 아니면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sup>780</sup> 또 『조선환여승람』에는 계조암은 ‘선암사 북쪽에 있다. 사방이 석벽이고 두 줄기의 폭포가 있는데 수홍포[水虹瀑]라 한다. 그 아래에 달공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81</sup>

달공화상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서산대사 휴정의 문집인 『청허집(淸虛集)』 6권, ‘태백산 본적암 수장모연문(修粧募緣文)’에 본적암을 달공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달공화상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나옹선사의 법을 이어 받았고 사후에 무학대사와 함께 법력이 높은 승려로 존중 받았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달공화상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활동한 승려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의상과 원효를 창건 설화에 연결 짓듯이 계조암도 달공화상을 창건주로 연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기양리사지(基陽里寺址)

기양리사지는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곰시골에 위치한 조선시대 절터이다. 기양리 곰시마을 뒤편의 밤나무밭 일대가 사지이다. 사지는 남쪽으로 트인 경사지에 3단의 토축을 쌓아 조성한 평지로 상단에는 4기의 민묘가 들어서 있다. 기양리사지 밤나무 숲에서는 와편과 토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지만 뚜렷한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와편이나 자기편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 존립하였던 듯 보인다.<sup>782</sup> 따라서 기양리사지 사찰은 조선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심수사지(深水寺址) [일명 온정리사지(溫井里寺址)]

심수사지는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독점골에 위치한 절터이다. 심수사지는 백암온천지구에서 백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흰바위쪽으로 1.0km 가량 가면 평해 황씨 묘가 있고, 이 민묘 북동편으로 산사면에 조성한 좁은 평지가 있다. 평지 중앙에는 무명묘 1기가 있고 그 주변과 산사면 아래로 많은 양의 와편이 수습된다. 다른 사지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와편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sup>783</sup>

그러나 심수사지에 창건되었던 심수사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sup>784</sup>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세기 초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창건되었던 심수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 이외의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나 『범우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사적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마도 심수사는 임진왜란

780. 한국학중앙연구원, 「달공굴 이야기」,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

781. 울진문화원, 2017, 앞 책, 45쪽

78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07쪽

78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25쪽

784. 이행 외,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5(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547쪽

당시 소실되어 폐사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 4) 옥정사지(玉亭寺址) [일명 고목리사지(古木里寺址)]

옥정사지는 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절터이다. 현재 대한불교태고종 소속의 옥정사가 자리잡고 있다. 옥정사지는 고목리 거리산 마을의 서쪽 도둑골에 위치한다. 사지에서 동쪽 구릉을 넘어서면 옥정사가 있다. 곡간평지 끝단의 경작지 말단부에 해당하는데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와편과 자기편이 소량 찾아지지만 유구나 기타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마을에서는 옥정사의 원래 자리라 하지만 구릉 사이의 좁은 평지 등으로 볼 때 작은 암자가 자리했던 듯하다.<sup>785</sup> 그러므로 옥정사는 조선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 5) 후포리사지(厚浦里寺址)

후포리사지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위치한 절터이다. 7번 국도에서 후포리 실배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동편에 울진 소방서가 있고 그 뒤편으로 곡간 경작지가 길게 이어진다. 경작지로 500m 가량 진입하면 골짜기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데, 넓어진 골짜기의 북편 경작지와 민묘, 그리고 농노 아래쪽의 계곡에서 토기편을 비롯해서 와편, 자기편 등이 소량 수습된다. 수습되는 와편은 소량이나 조선시대의 무문와편이다.<sup>786</sup> 따라서 후포리사지 사찰은 조선시대에 창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시대미상

#### 1) 고성리사지(古城里寺址)

고성리사지는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15 성저마을 북동편 행기골에 위치한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사지는 경작으로 인해 이미 지형이 크게 변한 상태이다. 조선시대 일부 와편이 수습되는 정도이며 그 외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고성리에는 능허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하나 불확실하고 지금의 지형으로 보아서는 작은 규모의 암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87</sup> 『관동지(關東誌)』 울진군 건치연혁에 ‘예전에 현성(縣城)을 바다를 따라 흙으로 쌓았는데, 장순열(張巡烈)이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이에 따라 능허사(凌虛寺)에 관사를 지었다’<sup>788</sup>고 하였다.

78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80쪽

786.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38쪽

78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53쪽

788. 강원도, 2007, 앞 책, 187쪽

## 2) 금음리사지(金音里寺址)

금음리사지는 울진군 후포면 금음2리 만산마을 일대에 위치한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만산은 마룡산의 나쪽 산사면으로 능선이 3면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간 경작지이다. 마을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서 와편이 확인되고 건축재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하지만 마을이 들어서고 경작지로 변모해서 현재 확인되는 사지의 흔적은 미흡하다. 마을에서는 북서편의 대나무 숲이 원래 사찰이 있던 자리라 한다.<sup>789</sup>

## 3) 길곡리사지(吉谷里寺址)

길곡리사지는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갈마동과 길곡리 광대골마을 사이 오봉골에 있는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근년에 골짜기 입구에 개인 불당이 세워지면서 이 골짜기 일대를 관리하고 있다. 오봉사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뚜렷한 사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sup>790</sup>

## 4) 봉림사지

봉림사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43-1 상토일마을의 북편 뱀골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현재 골짜기 입구 2, 3곳에 소규모로 돌들이 적석되어 있다.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데 일설에는 과거 봉림사의 터로 알려져 있다.<sup>791</sup>

## 5) 삼율리사지(三栗里寺址)

삼율리사지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삼율저수지 북서쪽 절골에 위치한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절골은 서쪽으로 길게 이어지다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남쪽으로 뺀 계곡으로 200m 가량 들어가면 계곡 좌측편 산사면 상단으로 50평 남짓한 평지가 있다. 이곳이 사지로 알려져 있는데, 암자터로 추정된다. 사지에는 샘이 하나 있고 잡목이 우거져 관련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sup>792</sup>

## 6) 통고사지(通古寺址)

통고사지는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해발 1,066.5m 통고산 북서편의 무쇠말터에 위치한 시대미상의 절터이다. 해발 850m 부근의 비교적 가파른 경사지로 통고산 자연휴양림에 포함된 지역이다. 사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은 화전과 자연휴양림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석축열이 확인되지만 후대 화전민촌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무쇠말터는 사찰에

789.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39쪽

79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10쪽

791.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50쪽

79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38쪽

서 수도하던 도승이 수도를 마치고 타고 갈 말을 무쇠로 만들어 바위에 세워 두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sup>793</sup>

### 제3절 부도와 석탑

#### 1. 부도(浮屠)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墓塔)으로 승탑, 사리탑, 부두, 포도, 불도 등 이라고도 한다. 부도의 종류로는 팔각원당형, 석종형, 방형, 석탑형 등이 있다. 팔각원당형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화려한 부도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석종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보편적인 부도로 건립되었다.

울진 지역의 부도는 4곳의 사찰에 7기의 부도가 유존하고 있는데, 이중 불영사 양성당부도가 가장 돋보이며, 그 다음이 대흥사지 부도이다. 이 부도만 보아도 울진지역에서의 불영사의 사적 영향은 대단하였다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존하는 모든 부도가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으며, 양식도 석종형 부도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제작수법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시대 석탑에서 볼 수 있었던 불교문화의 융성함이 점차 쇠퇴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도뿐만 아니라 다른 석조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 국가의 숭유억불정책의 영향으로 불사를 일으키는 등 불교의 외형적인 발전보다는 사찰 내에서의 내재적인 진척만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 하겠다.

79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84쪽